

2016 년 11 월 20 일(추수감사절)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시 147:1-5)

<도입>

엄마와 딸이 인생의 중요한 이슈를 두고도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주장할 때 서로에게 동감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 하나 되고 서로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1]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 절,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의미는 모든 별을 개성 있게 지으셨고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소중한 가치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각자의 독특성과 가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개성과 가치를 실제로 소중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 세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기원전 425 년경 소크라테스

어느 시대이든지 젊은 세대에게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더 복잡한 양상의 세대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3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오늘 날 존재하는 3 세대의 특징

(1) 생존 세대(survival generation)

1950 년에 전쟁 이후 너무 가난해서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는 돈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때부터 우리 나라에는 음식 말고도 먹는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챔피언 먹었다, 광도 먹고, 욕도 먹고, 등쳐 먹고,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2) 정체성(identity) 세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돈에 대한 것보다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생존 세대는 정체성 세대를 보면서 답답해 합니다. 그래도 정체성 세대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너 원하는 것 하라’고 합니다.

(3) 재미(fun) 세대

요즘 젊은 세대는 더 정교해져서(?) 좋아하는 것과 재미있는 것이 다를 때 혼동스러워 합니다. ‘무엇이 더 재미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fun 세대라고 합니다. ‘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니?’라고 물으면 ‘재밌잖아요’라고 합니다. 뭐든지 재미있으면 합니다.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 재미를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인생을 사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3 세대들은 가지고 있는 중심적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편 세대는 감각>아이덴티티>서바이벌, 아이덴티티 세대는 아이덴티티>서바이벌>감각 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인정할 때, 대화가 통할 수 있습니다.

[3] 서로를 돕는 세대

지금 본 다양한 세대,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그룹들(사회적, 종교적, 이념적 다른 집단)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는 흩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모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상처를 고쳐

주십니다(3 절). 각 세대가 중요하다고 믿는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스스로 고칠 필요도 없고, 서로 지적해서 더 나아지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11 절.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인애와 자비를 절실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파워(힘)를 추구하고 힘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 절 "여호와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권력과 돈이 있고 갑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뜻대로 컨트롤 하는 것이 파워입니다. 자기 파워를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인생과 역사를 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가,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직한 교통(communication)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생각을 잘 정리해서 (화내지 말고)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외적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어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되고 서로 간에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맺음>

하나님 나라는 communication 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관계의 교통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불통의 관계가 열려 교통하여 화목을 이루고, 우리를 하나되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서로가 하나님 경외하도록 사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바이벌과 아이덴티티와 편이 이 시대에 함께 어우러지는 화목과 하나됨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나는 나와 다른 세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봅시다. 부모세대, 자녀세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2. 다른 세대(또는 사람)에 대해 나는 어떤 대화와 교통의 방식을 갖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대화방법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술을 성찰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3. 다른 사람과 관계의 교통을 위하여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쳤거나,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